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한다!

- 농협중앙회는 본질을 외면 말고, 한·미 FTA 저지에 앞장서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안된다. 오늘 농림부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BSE 전문가협의회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쇠고기 수입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2003년 BSE 문제로 수입이 중단되었고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지 수출작업장 점검결과만으로 괜찮다고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결국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한·미 FTA를 강행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여야 국회의원이 한·미 FTA 협상 추진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줄속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에 대한 과대 충성인지, 아니면 다른 의중이 있는 것인지, 농민과 함께 한·미 FTA 저지에 앞장서야 할 농협중앙회가 한·미 FTA에 대한 농협의 입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각 시군 지부로 발송하였고, 협상저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효성도 적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농민을 위한 농협중앙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낙농육우 농가는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불모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농업회생, 낙농회생을 위해 농민과 뜻을 같이하고, 한·미 FTA 저지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9. 7

한국낙농육우협회